

建築設計競技의 問題

設計競技에 關係되는 諸問題에 대하여서는 이제까지 자주 되풀이 論議되어 왔다.

「問題」가 있다고 비판을 받는데「問題」가 있는 것이 아니라, 設計競技가 있을 때마다 「問題」가 있다고 지적을 받는데도 조금도 改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一般的 傾向으로서, 競技는 좋은 設計를 얻는 最良, 最高의 手段이라 생각되고 특히, 눈에 띈 만한 公共建築의 設計에 대하여서는 設計 競技로서 公募되는 것이, 많은 建築家로부터 期待되어 왔다.

그러나 잘 생각하여 보면 實施에 연결된 建築의 設計方法으로서, 設計競技가 과연 最高의 手段인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적어도 文學이나 音樂의 콘페디션과 同列로 論할 수는 없다.

물론 設計競技에는 設計경기 나름의 큰 意義가 있으나, 設計競技의 企劃이 安易하게 施行되지 않기 위하여 그 問題點 및 疑問點을 다시 들추어 낸다.

우리 나라의 設計競技는 이제까지 行하여진 設計競技에 대하여 贊否兩論에 갈려서 있는 建築界의 狀況속에 存在하고 있다.

歐美에서는, 그것은 극히 自然스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背景에는 評價의 基準이 되는 매우 定着한 建築디자인에 대한 理解가—이것은 여러 갈래의 傾向에 나누어져 있지만—流通하고 있기 때문이다.

設計競技의 一般的인 意義를 굳이 찾는다면 「建築家들 뿐만 아니라 建築主에 대해서도, 또 넓게 社會에 대해서도 利益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重要한 것은 設計競技가 자주 되풀이 되어 質이 좋은, 많은 公共建物이 우리들 生活속에 들어오므로서 좋은 環境에 대한 理解가 社會에 생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建築環境에 대한 要求를 높이는 것은 그 自體의 反映에 의하여 社會가 享受하

는 利益이다.

둘째로서는 建築主에 대해서도 利益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좋은 建築家 即 좋은 建築이 확실히 선택될 수 있다는 것, 外國에서의 事例가 이 事實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들 諸外國에서는 設計競技는 迅速하게, 그리고도 적은 經濟的負擔으로서 求하려는 建築을 세울 수 있는 手段으로서 理解되고 있다.

세째, 建築家에 대해서도 몇 가지 利點이 있다고 할 수 있다. 建築家側 만으로 限한 發想으로서 「才能이 있는 建築家를 찾을 수 있고, 젊은 建築家에 機會를 줄 수 있고, 設計組織에 活氣를 주고, 디자인 水準을 올린다고」 등을 指摘할 수 있다.

더욱 根本的인 것은 建築家を 고루는 節次로서 明快함과 디자인에 대한 責任을 明白하게 할 수 있고, 디자인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등이 重要한 것으로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設計競技의 最大의 目的은 좋은 建築作品을 고른다는데 있다.

그래서, 主催側은 設計競技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미리 기대할 수 있는 좋은 建築은 어떠한가라는 予測을 세워 놓아야 한다. 最低의 線을 予測하여 놓고 그 以上の 것이 出現하면 設計競技는 大成功일 것이다.

대개의 設計競技, 특히 公共建築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이든간에 建築家가 參與하고 審査를 하기 때문이다.

建築의 設計行爲의 리듬 속에서, 競爭意識이란 人間의 本能을 露出하여 어떤 對象에 挑戰한다는 것은 建築家 全体에 큰 刺戟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여러번 設計競技의 議論에 登場하는 存在理由를 列擧하였으나 問題點 또한 허다하다.

設計競技는 不親切한 것이다. 公正한 競技를 運營하기 위하여 主催者側의 意圖는 文書에 限定되기 때문에, 條件에 대한 情報量은 斷片的이다. 建築의 基本的 概念의 表現은 應募者에 쓸데없는 先入觀을 주지 않기 위하여 될 수 있는 限 느슨한 表現을 取할 수 밖에 없다.

即 設計期間中에 注文主와 設計者間에 對話가 없이 一方的인 理解로서 設計가 進行되고 있다는 點이다.

複雜한 機能을 갖는 建築일수록, 設計途中에 몇 번이나 注文主와 設計者 間에 미리 의논하고 意見의 交換이 行하지 않으면, 우수한 計劃을 얻을 수 없다.

設計者는 中間的으로 設計를 보여 주므로서 機能의 理解가 옳았다는 것을 確認하고, 注文者는 새로운 提案을 받아들여, 때로는 初期條件을 修正도 하여서 內容을 充實해 가는 것이 좋은 過程이다.

그럼에도 設計競技의 設計過程에서는 한 두번의 質疑應答은 있어도, 具體的인 案의 提示도 안되고 面対하여 주고받는 對話가 아니고, 電報에 依한 意見의 交換에 비스한 극히 不完全한 의논이 될 뿐이다.

이 不完全함으로서, 우수한 案으로 結晶할 可能性이 있는 것이 選拔에서 빠질 수도 있고, 入選案이라도 莫大한 勞力を 들였는데도 不拘하고 設計로서는 극히 初期의 段階로 생각되어 再出發 하여야 한다. 만약 應募案이 期待하는 것이 設計의 극히 初期의 範圍에 머문다면 多數의 案에서 選出하는 意義도 적다.

다시 말하여, 設計競技에서는 設計者는 孤獨하다.

共同討論을 하는데에도 그 數는 限定되어 있다. 더군다나 建築主側과 意思疎通을 피하므로서 質的向上을 도모할 수가 도저히 안된다.

設計의 方法論을 확고히 몸에 지닌 建築家라도 이 거칠고 矛盾에 찬 條件設定은 순조롭게 結論으로 간단히 안내할 수 없다. 하물며 方法論을 갖지 않는 建築家는 여러가지 假定의 併立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設計競技의 宿命이다.

이들 混迷를 어떻게 創造的混沌에 끌어 올리느냐에 있다. 우수한 創造者는 設計競技에 있어서 建築은 참 뜻에서의 프로젝트로서 提出하는 경우에는, 通常의 設計活動에 몇 배가 되는 決斷을 한다. 그 以外에는 創造의 길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릇된 獨斷으로 그치느냐, 혹은 將來를 予見한 英斷으로 轉化하느냐는 勝負의 運以外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對話가 없고 一方的인 設計가 왜 行하여지느냐 하면, 競技를 公正히 하기 위해서라 한다. 이 公正이란 것은 選考를 正當化하기 위해서 定한 規制이지, 우수한 案을 얻는 것과 直接的인 關係가 없다.

또 한 問題點으로서 숨어 있는 事實은 하나의 設計競技가 施行되면 거기에는 莫大한 智能과 勞力이 集中投入 된다는 것이다.

우선 應募者側에 대해서 보면 設計競

技에 應募하기 위해서는 應募案을 提出할 때까지 身心이 함께 피로하는 嚴格한 作業의 연속인 것을 작오하여야 한다. 應募를 한 以上은 競争에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全力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入賞도 되지 못한다면 그 設計製作에 要한 巨額의 直接經費는 空中에 뜬 돈이 되어버리고, 이 建築家의 損失은 오랜뒤까지 따라 다닐 것이다.

應募案의 1作에 投入한 努力이 이 정도이므로 應募案 全作品에 投入한 全 에너지는 정말로 膨大할 것이다.

審査하는 側의 努力도 절대로 적지 않다. 진실로 올바른 審査를 하기 위해서는 審査員의 1人1인이 自身이 設計를 할 정도로 努力이 必要하다고 한다.

規定의 條件이 갖는 意味를 理解하고 設計上 일어나는 問題點을 미리 알기 위해서도 확실히 이 정도의 事前의 準備가 필요할 것이다.

또 미리 만들어야 할 應募規定의 作成도, 公正을 期하고 誤解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대단한 神經과 努力이 드는 作業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審査員外에 많은 補助員이 있어서 設計競技가 아니면 안하여도 되는 일까지 뒷전에서 매우 열심히 作業을 한다.

이와같이 하나의 競技에 投入되는 에너지는 참말로 크다 할 수 있다.

그런데 建築主에 대해서는 普通의 設計料外에 약간의 賞金과 審査費用을 準備하므로써, 이만큼의 莫大한 智能과 努力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고마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보는 角度를 달리하면 膨大한 에너지를 投入하는 方法으로서 最良의 手段인가를 생각하면, 設計競技는 아무래도 效率이 나쁜 設計手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수 많은 應募속에서 入賞하는 것은 極少数이고 나머지 大多數는 아무 補償도 없이 落選이 되고 投入된 에너지는 모두 다 損失으로서 남게 된다.

이것은 經濟活動으로서 社會全體의 視野에서 본 경우 健全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努力과 함께 設計競技에 相當한 時間의 길이다. 대개의 경우 準備에서 選考까지의 期間을 포함해 普通의 設計에 比하여 대단히 긴 時間을 設計에 費한다. 이 긴 시간을 다른 形態로 좋은 設計案을 얻는 方法에 活用할 수 없을까?도 생각된다.

또한 設計競技에 회의적인 立場에서 몇가지 의문을 提示하겠다.

첫째 公共建築은 公共의 것이므로 建築設計는 公開募集하여야 한다고 일컬어

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장난이지, 現實的으로는 전혀 意味가 없다. 만약 公共의 것을 모두 公募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公共의 場所에 裝飾되는 繪畫나, 彫刻도 모두 公募하여야 하고, 모든 都市計劃이나, 道路나, 댐의 設計도 公募에 依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연 可能한 것인가.

만약 設計競技에 當選한 建築設計者가 그 一部를 彫刻으로 장식할 때는 그 彫刻家를 어떻게 하여 定하여야 할까.

設計를 競技로 할 정도이면, 設計以前의 企劃의 문제, 가령 한국銀行을 現場에 建築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느냐를 公共의 것이므로, 建築家뿐만 아니라 보다 더 一般國民의 意見聽取의 機會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둘째, 設計者의 決定을 公正한 立場에서 行하기 위하여 設計競技는 有効한 手段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建築設計는 테레비나 自動車를 구매하는 것과 다르게 注文의 段階에서 어떤 設計가 되어지는지 予想도 困難하다.

建築家を 선택하였다 하여서 반드시 좋은 設計가 얻어진다고 斷定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特命에 대한 注文主의 不安이 있다.

또 特命發注에 이르기까지에는 營業活動의 優劣도 關係하며 뒷거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疑惑의 눈으로 보는 두려움도 있다.

이것에 대하여 設計競技에 依한 設計者의 決定은 明快하고 設計의 됨됨을 추측하는데 비교적 安心이다.

特命發注가 政治의 理由로 困難할 때에는 設計競技에 依한 設計者의 決定을 正常化하는 例도 實際로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担当者의 責任回避이고 정말로 바람직하느냐는 의심스럽다.

自動車を 구입하는 경우에도 어떤 社會에서 어느 車種을 사는 것을 決定하면 그 決定한 担当者는 當然 그 選定에 대하여 責任을 가져야 한다.

設計者의 選定에 있어서도 이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고 完成된 設計의 優劣에 대해서는 設計者를 決定한 者도 그 責任의 一端을 짊어져야 한다.

단 自動者와 다른 것은 責任을 지라 하여도 그 優劣의 査定이 比較的 困難하다는데 불과하다. 査定이 困難하면 그 査定의 方法을 연구하고 選定에 노력하는 것이 좋지, 設計競技에 回附하여 決定의 實權을 審査員에 委任하는 것은 흡사 責任을 回避하고 責任의 所在를 애매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担当者는 自己의 責任의 莫大함을 더욱 더 깊이 認識하여, 設計者의 決定을

慎重히 行하고 設計의 指導를 올바르게 하고 指名된 建築家は 担当者의 기때에 보답하도록 十分 노력한다는 本來의 있어야 할 姿勢에 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다.

세째, 設計경기는 新入의 登龍門이란 생각이 있다. 그러나 設計競技에 新入이 入選하여 우수한 作品을 만들었다 하여도 이것은 결과이고 設計競技의 目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建築家側의 發言이고 注文主側의 利益과는 關係가 없는 얘기이다.

注文主가 얻고 싶은 것은 우수한 案이고, 新入이나 아니냐는 그리 主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才能이 世上에 認定받지 못한 젊은 建築家에 대해서는 設計競技는 확실히 自己의 才能을 보이는 絶好의 찬스이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設計競技가 수 없이 開催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論理的으로 말하여서, 때문에 設計競技가 우수한 設計手段이라 말할 수 없다.

만약, 새로운 畵를 찾고 키우고 建築界 全體의 向上을 圖謀하려는 意圖라면 實施를 따르지 않는 設計의 競技나 그외의 方法에 依하여야 한다. 每年 國展이 行하고 있는 建築展 등은 技術의 振興과 젊은이의 奮起를 위하여 좋은 例의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設計競技가 存在하여야 한다면, 다음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海外的 諸國에서 設計競技가 벌어지고 있는 데에는 그것을 지명하는 條件이 確立할 때 까지의 긴 試鍊의 時代를 거치고 있다.

첫째, 諸外國에서는 日常의 業務로 된 設計競技運營委員會가 確立되어, 運營費用이 適切히 設定되어 權威가 定立되어야 한다.

둘째, 建築의 評價基準이 높은 水準으로 確立되어야 한다. 이것은 審査員의 質의 問題로서 建築界 全體의 層의 두께에 연결된다.

그리고 審査員의 質이 明白하게 設計競技의 質을 左右한다고 볼 수 있다.

또 審査員의 質과 審査員을 包含하는 建築界의 水準과는 끝없는 相互依存의 關係에 있다.

그런데, 設計競技가 아카데미한 아이더어를 찾고, 完全한 作品을 求하는 時代는 過去의 것으로 되어가는 듯하다.

建築社會는 더욱 더 複雜多樣하게 되고 建設對象은 複合化되어 간다.

이 때, 좋은 建築을 求하는 手段으로서의 設計競技가 이 流動的 狀況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問題가 될 것이다.